

#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

崔長根\*\*  
nihonbu@daeg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우산도」와 울릉도 명칭의 생성과 변천 |
| 2. 「우산도」명칭의 4가지 유형의 특징 | 5. 「석도」와 「독도」명칭의 생성과 전개  |
| 3. 「우산도」명칭의 유형별 사례     | 6. 맺으면서                  |

主題語: 우산도(Usando), 칩령41호(Chikryeong41), 석도(Sukdo), 독도(Dokdo), 소위 우산도(Soi Usandp)

## 1. 들어가면서

독도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 연중 약 50여 일간 울릉도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sup>1)</sup>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으로 오늘날의 독도 지명이 생성되었던 시기는 역시 우산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조선 초기 공도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거주민이 살고 있을 때였다. 다음으로는 근대에 들어와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시작되면서 독도의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전자의 고대시대의 경우는 근대에 비해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일부러 독도에 가는 경향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섬의 형상 등으로 명칭이 정해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후자인 근대에 들어와서는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독도가 생활문화의 영역 속에 깊숙이 포함되면서 섬의 형상이 구체화되어 형상에 의한 명칭이 명명되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생활문화권이 아니었던 근대이전에는 우산도와 같이 형상과 관계없는 명칭이 붙여졌고, 근대와 같이 직접적인 생활문화 환경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형상에 의한 「돌섬」과 같은 명칭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과제 지원금에 의한 연구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1)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하여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했다. 홍성근·문철영·전영산·이효정(2010)『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오늘날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본고는 1900년 「칙령41호」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와 동일한 섬이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논증방법은 울릉도의 전통적인 명칭과 관찬명칭 「우산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석도」는 전통적인 명칭에서 유래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다시 유래되어 오늘날의 「독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한다.<sup>3)</sup> 이런 유형의 선행연구는 없다.<sup>4)</sup>

## 2. 「우산도」명칭의 4가지 유형의 특징과 사례

### 2.1 「우산도」명칭의 4가지 유형의 특징

「우산도」명칭의 지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동해에 2개의 섬으로 표시된 것이다. 즉 울릉도보다 크기는 약간 작지만 동서남북 적당한 위치에 그려져 있다. 이는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명확하나, 정확한 형상이나 위치, 크기 등의 정확한 지견(知見)이 없다. 이것은 조선초기의 인식으로서, 아직 신라시대의 우산국과 조선시대 말기에 사람이 거주하던 시기의 영토인식이 계승되어 영유권 인식을 갖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②울릉도 주변의 섬과 암초를 그리고, 그 중의 큰 섬을 우산도라고 표기한 것이다. 울릉도 주변에 있는 가장 큰 섬이 우산도라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동해에 울릉도, 우산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무리하게 울릉도 주변의 작은 섬들로 비견한 것이다.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은 존재했으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지견이 전혀 없었다. 이 시기는 공도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서 가장 부정확한 지도를 그렸다.

③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울릉도보다 작은 섬으로 울릉도의 동쪽에 서 남쪽정도에 위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시기이다. 울릉군도(群島)의 일부인 「죽도」가 아니라는 입장은 명확했고, 또한 독도의 지견과 영토에 대한 인식이 다소 명확했던 시기이다.

2)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사업사, pp.39-54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백산자료원, pp.113-151 최장근(2008)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제이앤씨, p.8 최장근(20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구상』백산자료원, pp.11-130

3) 川上健三(1966) 『죽도의歷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 p.100. 우산도=독도 부정.

4) 선행연구는 지도에 우산도와 석도, 독도 등 한국식의 명칭이 등장하면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증거라고 해석해온 측면이 있는데,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④오늘날과 같이 독도가 울릉도 동남쪽의 먼 바다에 위치한다는 인식이다. 이 시기는 독도의 지견과 영유권 인식이 명확했다.

## 2.2 「우산도」명칭의 유형별 사례

① 첫째유형 : 울릉도와 유사한 크기로 동서남북에 그려진 「우산도」이다. 조선시대 초중후기(말기제외)에는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지 않았다. 특히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에 울릉도와 더불어 또 다른 섬을 지도에 그렸다. 하지만 울릉도는 명백히 확인된 섬이었지만, 오늘날의 독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된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의 크기는 울릉도보다 조금 작게 그렸고, 위치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적당한 위치에 그려 넣었다.<sup>5)</sup> 이러한 형태는 섬에 대한 영토의식의 발로에 의한 것으로, 섬의 위치라든가 형상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지도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동국여지승람에 삽입된 「팔도총도」이다.

첫째유형은 울릉도와 유사한 크기로 동서남북에 그려진 ‘우산도’로서 천하여지도 모회증본(작자미상, 17세기 초), 천하대총일람도(작자미상, 17세기말), 조선팔도지도(1469-1481)를 비롯해서 수십여 종이 존재한다.<sup>6)</sup>

② 둘째유형 : 울릉도 주변 군도의 일부로 표기한 「우산도」: 18세기에 들어오면 울릉도 이외에 「소위 우산도」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소위 우산도」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산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유럽은 물론이고 이미 동아시아에서도 전근대시대의 지대개념의 국경에서 선(線)개념의 국경을 표시하여 국가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해양경계에 있어서도 각종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하는 시기였다. 조선에서는 울릉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이외의 또 다른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명확히 하려고 했다. 동해에는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라는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해 조선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18세기는 안용복사건이 있는 직후였기 때문에 특히 우산도에 대한 영토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문헌상으로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기록하는 것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도를 그릴 경우에 그 위치나 모양, 그리고 크기 등을 표기할 때 오늘날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18세기의 조선조정은 공도정책으로 울릉도에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5)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경세원 참조.

6) 「독도에 대한 사실들」, 2008/07/20작성, <http://blog.naver.com/cms1530/10033194722>(2012년1월24일 검색).

의 조정의 관리들에게도 「우산도」의 위치나 형상에 대한 명확한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수토한다고 하더라도 우산도가 항상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토사들은 수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문헌 상에 존재하는 「우산도」를 울릉도 주변 섬의 일부로 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적당한 위치에 「소위 우산도」라는 섬을 그려서 섬에 대한 영유권을 표시했던 것이다. 그것이 「소위 우산도」가 된 것이다. 이 「소위 우산도」는 실제의 위치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 그려놓은 것이다. 「소위 우산도」는 오늘날의 죽도(땃섬)와는 별개의 섬이다.8) 오늘날의 「죽도」는 원래 그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1840년대의 청구도에서는 울릉도와 더불어 「소위 우산도」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여기서 「소위(所謂)」라는 말은 「말 하는 바」에 의하면 「말 해지는 바」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타인의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둘째유형(울릉도 주변 군도의 일부로 표기한 ‘우산도’)으로는 울릉도도형(박석창, 1711), 대한전도(학부편집국, 1899), 울릉도 『조선지도』9)(작자미상, 18세기 중반), 울릉도 『해동지도』10)(작자미상, 18세기 중반), 울릉도도 『팔도여지도』11)(작자미상, 18세기 중반), 대동총도 『해동지도』(작자미상, 18세기 중반), 대한지지(大韓地誌)-강원도도(江原道圖)12) 등이 있다.

③셋째유형 : 울릉도 동쪽, 남쪽 북쪽에 그려진 작은 섬 「우산도」: 이 유형은 「우산도」의 위치가 대체로 울릉도 서쪽이 아닌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린 경우다. 한일 간의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사건이었던 ‘안용복사건’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대체로 우산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졌던 시기이다.13)

셋째유형(울릉도 동쪽, 남쪽 북쪽의 작은 섬)으로는 아국총도 『여지도』(작자미상, 18세기 후반), 조선전도(작자미상, 18세기 후반)를 비롯해서 수십여 종이 있다.

④넷째유형 -울릉도 동남쪽 바위섬으로서의 우산도 : 넷째유형은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7) 池内 敏(2009) 「일본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다케시마(竹島)·마츠시마(松島) 인식」 『獨島研究』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01

8) 전개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참조.

9) 현재의 「죽도」보다 훨씬 먼 곳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죽도」와 별개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10) 현재의 「죽도」와 유사한 위치.

11) 현재의 「죽도」와 유사한 위치.

12) 전개, 「독도에 대한 사실들」

13) 김호동(2009.2)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94. 정영미역(2010) 『竹島考 상·하』경상북도·안용복재단, pp.205-211

본격화된 시기에 섬의 형상이나 위치가 중시되어 표기된 지도이다.<sup>14)</sup> 1882년 이후에 울릉도 개척이후에 나타나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더불어 오늘날의 독도의 위치가 상세하게 표기되었다.

⑤기타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울릉도도) : 「울릉도외도」(이규원, 1882)에는 오늘날의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짧은 기간의 울릉도조사였기 때문에 이규원은 울릉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인이 직접 보고 조사한 내용만을 조정에 보고했던 것이다. 이때에 독도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릉도외도」에는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이규원에 「울릉도외도」에 오늘날의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소위 우산도」처럼 잘못된 내용은 없었다. 또한 조선조정에서는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없었지만, 전승되어오는 「우산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의 동해영토정책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규원의 조사를 토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 3. 울릉도와 「우산도」명칭의 생성과 변천

#### 3.1 「울릉도도형」계통의 지도

1694년(숙종 20)에 三陟僉使로 하여금 울릉도의 경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 울릉도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고 2년 내지 3년에 1회씩 수토관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관리했다. 수토사로서 「박석창」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박석창은 삼척영장으로서 1711년 수토관으로서 울릉도에 파견되었고, 박석창은 울릉도를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다. 이 이외도 숙종실록에 의하면 「전회일」, 「이준명」 등이 울릉도를 수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을 그려서 보고했다.<sup>15)</sup> 하지만 수토사가 그린 지도는 오늘날의 「울릉도지도」<sup>16)</sup>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① 전회일의 「울릉도도형」<sup>17)</sup> : 「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리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강원도(江原道) 월송 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14) 池内敏(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p.14

15) 전계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2

16) 「울릉도지도」, [http://cafe.daum.net/lovery416/Kfw4/2?docid=1KmgV|Kfw4|2|20100424192425&srchid=IIMVWkZ3300&focusid=A\\_1456AE104BD2C6C098B883](http://cafe.daum.net/lovery416/Kfw4/2?docid=1KmgV|Kfw4|2|20100424192425&srchid=IIMVWkZ3300&focusid=A_1456AE104BD2C6C098B883)(2012년1월18일 검색)

17)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2012년1월18일 검색)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국립중앙도서관, 미상,

수토(搜討)하고 대풍소(待風所)로 돌아왔다. 본도(本島)의 지형(地形)을 그려 올리고, 겸하여 그곳 토산(土産)인 황죽(皇竹)·향목(香木)·토석(土石) 등 수종(數種)의 물품을 진상하였다.」<sup>18)</sup> 라는 것이다. 아래의 「울릉도도형」은 1699년에 울릉도 수토관이었던 강원도 월송만호 전회일이 그린 것이라 추정한다.<sup>19)</sup>

전회일의 「울릉도도형」에서 나타난 지명은 12방위를 사용하여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부분을 ‘○○龜尾’라고 명명했다.

조사한 지명은 「통구미(桶龜尾), 도장구미(都藏龜尾), 평초구미(萍草龜尾), 사태구미(沙汰龜尾), 대풍소(待風所), 황토굴(黃土窟), 대풍구미(待風龜尾), 공암(孔巖), 현석구미(玄石龜尾), 추봉(錐峯), 천저구미(天底龜尾), 후죽암(幟竹巖), 용암(龍巖), 소우도(小于島), 대우도(大于島), 저전(苧田), 왜선창구미(倭船倉龜尾), 장사구미(長沙龜尾), 저전(楮田), 竹田(죽전)」 등이 있다.

오늘날의 독도에 대해서는 월송 만호 전회일은 울릉도를 수토했을 때 독도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울릉도 이외의 섬을 우산도로 반영하여 현재의 「죽도」를 '大于島, 관음도를 '小于島라고 명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팔도총도



전회일의 「울릉도도형」



이준명(?)의 「울릉도도형」

②이준명의 「울릉도도형」<sup>20)</sup> : 숙종실록에 울릉도 수토관 삼척영장 이준명이 울릉도를 수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삼척 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과 왜역(倭譯) 최재홍(崔再弘)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圖形)과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석간주(石間朱)·어피(魚皮) 등의 물건을 바쳤다. 울릉도는 2년을 걸러 변장(邊將)을 보내어 번갈아 가며

18) 「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린다」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 청강희(康熙) 38년) 7월 15일(임오)

19)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 추정, 「울릉도도형」에 대한 산음신문 보도, <http://blog.naver.com/cms1530/10033749142>(2012년1월20일 검색)

20)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참조,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삼척시립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찾아 구하는 것이 이미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삼척(三陟)이 그 차례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준명이 울진(蔚珍) 죽변진(竹邊津)에서 배를 타고 이튿날 밤 만에 돌아왔는데, 제주(濟州)보다 갑절이나 멀다고 한다.»<sup>21)</sup>라는 것이다. 대략 10명 정도가 수도에 가담했고,<sup>22)</sup> 울릉도의 둘레가 대략 1백여리(鬱陵島圖形周回僅可百餘里)라고 했다. 아래의 「울릉도도형」은 1702년에 울릉도 수도관 삼척영장 이준명<sup>23)</sup>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sup>24)</sup>

이 지도에 나타는 지명은 「통구미(桶仇味), 도장구미(都藏仇味), 평초구미(萍草仇味), 사태구미(沙汰仇味), 대풍소(待風所), 주토굴(朱土窟), 대풍구미(待風仇味), 공암(孔巖), 현석구미(玄石仇味), 추봉(錐峯), 천저구미(天底仇味), 후죽암(候竹巖), 용암(龍巖), 소우도(小于島), 대우도(大于島), 저전(苧田), 왜선창(倭船倉), 장사구미(長沙仇味), 저전(楮田)」 등이 있다.

지명의 특징으로는 전회일의 ‘○○龜尾’가 구미(仇味)로 표현되었고, 현재의 죽도는 大于島, 관음도는 小于島라고 표현했다.

이준명의 「울릉도도형」과 비교했을 때, 지형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했고, 울릉도지형도 훨씬 조밀하게 표현했다. 또한 지명의 변화는 없으나, 또한 전회일(?)의 「울릉도도형」의 지명중의 ‘○○龜尾’가 ‘○○仇味’로 바뀌었다.

오늘날의 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도형」 속에 오늘날의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송 만호 이준명도 전회일과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수도하면서 독도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래되어오던 종래의 인식이었던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하는 「우산도」의 영유권 의식의 발로로 「전회일」을 답습하여 「소우도」와 「대우도」로 표기했다고 추정된다.

③ 박석창의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sup>25)</sup> : 1711년(숙종 37)에 수도관으로 파견되었던 삼척영장 박석창이 울릉도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조정에 올린 지도로서 비변사에 소장된 기밀본에 의하면,<sup>26)</sup> 울릉도 수도관 삼척영장 박석창이 울릉도를 수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신묘 5월 14일 왜선창에서 대풍소(待風所)로 배를 옮겨 서툼 글 한마디 표기하다. 뒷날 (方上에

21) 숙종 36권, 28년(1702 임오, 청 강희(康熙) 41년) 5월 28일(기유).

「삼척 영장 이준명 등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과 자단향 등을 바치다」

22) 營將一名, 倭學一名, 軍官二名, 營吏一名, 吏?一名, 庫子一名, 軍牢二名, 都?一名

23)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4월 13일(갑진). 「재신들과 자산 군수 이준명·전 영장 정주한·박명창·이정익 등의 죄를 다스리다」

24) 시모조 마사오 「울릉도도형」에 대한 산음신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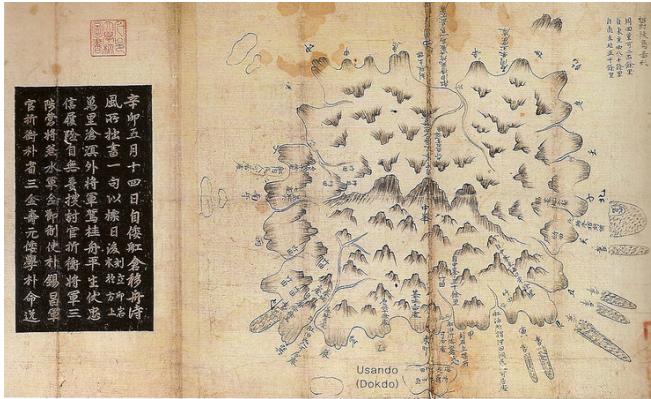
<http://blog.naver.com/cms1530/10033749142>(2012년1월20일검색)

25)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전개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2 한국, 박석창, 171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6)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9월 27일(무오) 원본456책/탈초본24책 (5/5) 1710년 康熙(聖祖) 49년. 「梁益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묘암목을 세워 새겨 넣었다. 만리 푸른 바다 밖 장군 계수나무 배에 오르다. 평생을 충신(忠信)에 기대어 험난함이 스스로 사라진다. 수도관 척위장군 삼척영장 겸 수군 첨절제사 박석창, 군관 절충 박성삼·김수원, 왜학 박명일<sup>27)</sup>라는 것이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이규원의 「울릉도외도」



지명의 특징으로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에는 오늘날 「죽도」를 「소위 우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위치상으로는 오늘날 독도의 위치와는 전혀 다르지만,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고려사지리지 등에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하는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죽도」와 「관음도」의 명칭대신에 「소우산」과 「대우산」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던 전희일과 이진명의 지도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을 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울릉도도형」계통의 모든 지도에는 동국여지승람 등의 고문헌 상에 등장하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산도」의 영토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④이규원의 「울릉도외도」<sup>28)</sup> : 근대에 들어와서 조일수호조규와 더불어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자 울릉도도 예외 없이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빈번히 침입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조선 정부가 알고 1882년 5월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을 보내 섬을 순찰하도록 했다. 이때에 조사한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고종에게 올렸다. 원래 울릉도 내부 지역을 그린 「울릉도내도(內圖)」

27) 辛卯 五月十四日 自倭舡倉移舟待風所 拙書一句以標 日後(刻立卯岩木於上方) 萬里滄溟外 將軍駕桂舟 平生伏忠信 履險自無漫 搜討官折衡將軍 三陟營將兼水軍僉節制使朴錫昌 軍官折衡朴省三金壽元 倭學朴命逸(한글 번역; 한미음님)

28) 전개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7



와 함께 「울릉도외도」가 한 쌍으로 이루어고 있다. 「울릉도외도」는 이전 수토사 「전회일」, 「이진명」 등과 마찬가지로 섬 주변에서 해안을 자세히 그리려고 한 것으로 섬 외부에서 내부 방향으로 그리고 있다.

이규원이 조사한 바위와 섬의 이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대암(大巖) (2)홍암(虹巖) (3)죽도(竹島) (4)도항(島項) 순이었다. 그 외에 축기암, 형제암, 시어머니바위(老姑巖), 종바위(鐘巖), 장군바위(將軍巖), 투구바위(冑巖), 꽃바위(華巖), 봉바위(鳳巖) 등을 표기했다.<sup>29)</sup> 이들 섬은 모두 울릉도 주변에 산재된 암초이다. 암초가 아닌 섬으로서는 竹島와 島項이 있는데, 이들 명칭은 이전의 수토사들이 붙인 명칭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명칭은 울릉도 거주민들에 의해 불리던 명칭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 섬의 명칭은 이전 수토사들이 작성한 지도를 참고로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의 「관음도」에 대해 1882년 이규원이 제작한 「울릉도외도」에는 「島項」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의 「죽도」는 이규원의 조사시점부터 「죽도」라고 표현되었던 것이다. 1909년의 『한국수산지』<sup>30)</sup> 부속지도(海圖 306호)에는 「鼠項島」이라고 한자로 표기하여 「Somoku Somu」(한국명 섬목, 일본명 소모쿠)이라고 호칭했다. 조선수로지에도 鼠項島(Somoku Somu)이라고 표기했다. 일본식 표기의 「소모쿠」는 한국식의 「섬목」이라는 표현이다. 지금의 「죽도」는 1909년 『한국수산지』에는 「竹嶼」라고 표기하여 「Tei Somu」이라고 호칭했다. 이는 「대나무의 섬」이라는 의미로 「대섬」을 말한다.<sup>31)</sup>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정을 통해 당시에 사용되었던 울릉도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2)</sup>

즉, 「4월27일 평해에서 10리쯤 떨어진 구산포 도착, 4월29일 구산포에서 출발, 4월30일

29) 이규원 관찰사가 그린 「울릉도외도」를 참고함.

30) 수로부의 「海圖 제306호 조선동안 竹刀灣至水源端」 1909. 박병섭(20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 독도 국제심포지움』, p.154

31) 박병섭(20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154. 박병섭(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 = 獨島問題(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p.210 박병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영유권문제」 『독도연구』 8호, p.68

32)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서와 울릉도외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ms1530&logNo=10010622279>(2012년1월19일검색). 이규원, 188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장소와 인원 출신지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즉 「소황토구미(학포): 전라도 홍양 삼도 김재근외 23명 (배를 짓고, 미역을 따는일), 대황토구미(태하동): 평해 최성서 13명(상인), 경상도 경주 7명(약초채집), 경상도 연일 2명(대나무벌목), 왜선창(천부): 전라도 낙안 이경철외 20명(상인), 경상도 흥해(홍양) 초도 김근서외 19명(조선), 나리동: 경기도 파주 정이호(약초상), 성인봉-저동으로 가는 길: 전라도 함양 전석규, 도방청(울릉), 장척지포(사동): 두군데의 일본인 합계 78명(벌목), 장척지포(사동): 경상도 흥해(홍양) 초도 김내언외 12명(조선), 통구미진: 경상도 흥해(홍양) 초도 김내윤외 22명(조선) 등이다.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서와 울릉도외도」,

오후 5~7시경 소황토구미(학포) 도착, 5월 1일 풍량이 크게 일다. 5월 2일 산을 올라 대황토구미(태하동)에 도착(학포-태하동이 산길 30리?), 5월 3일 고개를 넘고 숲을 뚫고 黑斫支(기문작지, 거문작지, 현포)에 도착, 배를 타고 노를 저어 倡優岩(노인봉, 老人峰), 千年浦(천년포), 錐峰(송곳봉우리, 송곳산), 倭船倉(천부, 天府, 북면의 면소재지), 깊은 계곡으로, 다섯개의 큰 고개 흥문가, 羅里洞(나리동), 5월 4일 聖人峰(성인봉)에서 동쪽으로 십 여리 가서, 전석구의 초막, 苧浦(저포, 저동, 苧洞, 모시개)에 노숙, 5월 5일 道方廳浦(도동, 道方, 道方廳, 道方廳浦, 道洞)에서 왜인을 만남, 長斫之浦(사동, 沙洞, 長斫支 浦口), 5월 6일 長斫之浦에서 桶邱尾(통구미)로 가는 도중에 일본이 세워 놓은 표목을 보다. 5월 7일 谷浦(골계, 谷溪, 남양동, 南陽洞, 谷浦), 5월 8일 소황토구미로 다시 도착, 5월 9일 서쪽으로 십여리 가서 向목구미[대황토구미] 대풍구미[혹척지] 왜선창 선관구미, 선관구미 남쪽바다에 두개의 작은 섬(죽도, 도항), 5월 10일 道方廳-長斫之-桶邱尾-黑浦-沙汰邱尾-山幕洞-소황토구미, 5월 11일 오전 7시~9시경 평해로 출발 5월 13일 오후 9시~11시경 평해에 도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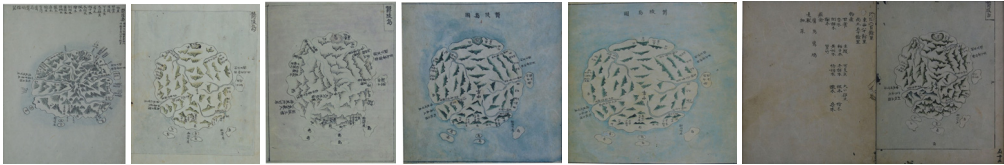
이상의 지명을 전회일의 「울릉도도형」<sup>33)</sup>에서 나타난 지명과 비교했을 때 그대로 사용되는 지명은 통구미(桶龜尾), 왜선창구미(倭船倉龜尾), 황토굴(黃土窟), 저포(苧浦) 등의 관련 용어만 남아 있을 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이규원의 조사는 이전 수토사들의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당시 울릉도 거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 3.2 원형계통의 지도

원형계통의 지도는 「소위 우산도」라는 표기를 볼 때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참고로 했음을 알 수 있고, 박석창지도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다는 것은 박석창 이후에 또 다른 수토사가 울릉도를 수토하였음을 의미한다.

33) 「桶龜尾(통구미), 都藏龜尾(도장구미), 萍草龜尾(평초구미), 沙汰龜尾(사태구미), 待風所(대풍소), 黃土窟(황토굴), 待風龜尾(대풍구미), 孔巖(공암), 玄石龜尾(현석구미), 錐峯(추봉), 天底龜尾(천저구미), 帳竹巖(후죽암), 龍巖(용암), 小于島(소우도), 大于島(대우도), 苧田(저전), 倭船倉龜尾(왜선창구미), 長沙龜尾(장사구미), 楮田(저전)」 등이 있다.

①『해동지도』 ②지승<sup>34)</sup> ③광여도<sup>35)</sup> ④여지도<sup>36)</sup> ⑤『팔도여지도』<sup>37)</sup> ⑥여지도<sup>38)</sup>



「해동지도」<sup>39)</sup>에 표기내용을 보면, 「각석입표(刻石立標), 각판입표(刻板立標), 공암(孔岩), 관활(寬豁), 굴(窟), 기(基), 기지(基址), 기지삼사여처(基址三四餘處), 기지삼사처(基址三四處), 기지삼처(基址三處), 기지육칠처(基址六七處), 대소암(大銷岩), 대암(大岩), 대천(大川), 대풍소가거(待風所可居), 도(島), 도(島), 도(島), 도(島), 도(島), 도장구미(道莊仇尾), 백중봉이십여리(白中峯二十餘里), 사공포(沙工浦), 석성문기지(石城門基址), 석장(石葬), 석장(石葬), 석장십여처(石葬十餘處), 선박가거(船泊可居), 선박가거(船泊可居), 선유대(仙遊臺), 소소암지이처(小銷岩址二處), 쌍포암(雙布岩), 왜선창가거(倭船倉可居), 우각암(牛角岩), 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 입암각표(立岩刻標), 저전동가거(苧田洞可居), 주토구미(朱土仇尾), 주토굴(朱土窟), 주토굴(朱土窟), 죽전(竹田), 죽전(竹田), 죽전(竹田), 죽전(竹田), 죽전(竹田), 죽전(竹田), 중봉(中峯), 중봉(中峯), 중봉삼십여리(中峯三十餘里), 중봉십사여리(中峯十四餘里), 중봉이십여리(中峯二十餘里), 천저구미(天低仇尾), 탑사찰기지(塔寺刹基址), 황암(黃岩)」 등이 있다.

이 지도의 특징으로는 「원형지도 중 가장 자세히 표기된 지도」이고, 「울릉도 가운데에 中峰(성인봉)을 그리고 주변의 봉우리가 모두 중심을 향하게 그린 독특한 형식의 지도이다. 東西南北과 함께 文王八卦方位(巽, 艮, 乾, 艮)에 의해 방향을 표시하였다. 산줄기 사이로 하천을 그리고 大川流出이라고 적고 있다. 해안에는 中峰까지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땅에는 寬豁이라고 표시해 두었으며 살만한 지역은 可居라고 표시하였다. 해안의 바위에 는 立岩刻標라고 적었으며 북쪽의 구멍바위(孔岩)까지 표시하였다. 倭船倉, 待風, 船泊, 家居 등 일본과의 관계, 바람, 선박운행, 거주 가능한 지역 등도 표시되어 있으며 石城門의 터, 石葬(지금도 남아 있는 울릉도의 古墳), 塔, 寺刹 터 등 유적을 표시하고 있다. 해안에는 竹田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은 간단하게 기록하였는데 나무, 해산물, 동물 등이

34)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35)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37-1776  
 36)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36-1776  
 37) 전계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5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중반, 현재의 「죽도」와 같은 위치임.  
 38)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표현한 것.  
 39)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세기중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과, 석장, 죽전, 토산물 등이 한 면에 표시하고 있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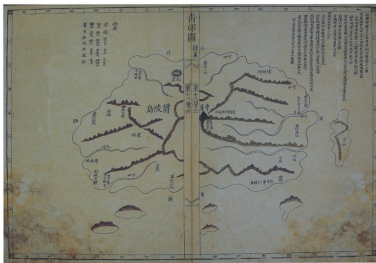
이는 앞서 그려진 「울릉도도형」 중에서도 박석창의 「울릉도도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특히 박석창의 「소위 우산도」설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독도와 관련하여 「所謂 于山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오늘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당시 울릉도를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울릉도에서 연중 50여일밖에 볼 수 없는 울릉도 이외의 섬인 독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토당시 울릉도 이외의 우산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주변의 섬을 우산도로 표기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많이 존재하는 원형계통의 지도는 대체로 내용상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서로 영향을 받은 지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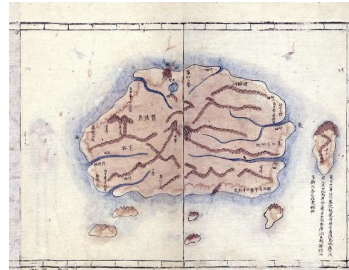
### 3.3 청구도계통의 지도

①청구도 : 청구도 계통의 지도는 상기에서 언급한 수토사들이 그린 지도와도 다르고, 원형계통의 지도와도 다른 형태의 울릉도지도이다. 이것은 17. 8세기에 수토한 지도, 그리고 원형계통의 수토지도 이후에 새롭게 울릉도 수토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대동여지도의 필사본에 의하면 “영종11년(1735년) 강원감사 조취수가 울릉도를 시찰,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산 흔적이 있고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광활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35년 강원감사 조취수가 울릉도를 시찰하여 그린 지도가 청구도계통의 지도에 미친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청구도<sup>42)</sup>



청구도<sup>43)</sup>



40)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이현군」 설명인용.

41) 전계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4

42)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김정호, 국립중앙도서관, 1860-1872

43)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1834, 김정호

청구도44)는 붉은색의 주도굴, 죽전, 석장, 저전동등 울릉도의 역사와 물산 그리고 지리를 기재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물산편에 원숭이가 나타난다는 기록도 있다.45) 이 지도는 원형지도들과 같이 울릉도 본섬 주변에 6개의 암초와 섬을 그리고 있는데, 암초위에 나무나 숲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고, 온전한 섬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우산」뿐이다. 여기서 「우산」 섬은 오늘날의 「죽도」에 비견하고 있지만, 동해의 영역인식으로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2섬 인식을 답습한 것이다.

「청구도」 계통의 지도가 아래와 같이 「동여도」, 「해동지도」, 「대한전도」, 「조선전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②청구도46) : 청구도47)는 「영조 11년(1735)에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가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울릉도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넓고 광활합니다.」48)라고 했다.

청구도49)

동여도50)

울릉도『해동지도』51) 강원도도『대한전도』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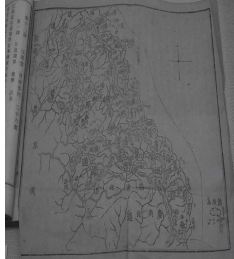
이 지도는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도와 아래쪽에 작은 섬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동일계통의 지도는 아래의 조선전도-강원도도, 대한지지(大韓地誌)-강원도도(江原道圖)등이 있다.

44)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김정호, 국립중앙도서관, 1860-1872  
 45) 전게서, 「독도에 대한 사실들」  
 46)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1834, 김정호  
 47)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1834, 김정호  
 48) 英宗十一年 江原監使趙最壽 啓言 鬱陵島地廣土沃有人居間地 而又有于山島 亦廣闊云即 所謂西字與 此圖之在東相佐  
 49)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김정호  
 50)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1795-1800: 동여도(東輿圖) - 울릉도(鬱陵島) 일본 쓰쿠바대학부속도서관 (筑波大学附属図書館)  
 51) 전게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94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 목록」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76-1795, 현재의 「죽도」와 같은 위치.  
 52) 전게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영남대학교 박물관, 1899

강원도도, 『조선전도』<sup>53)</sup>



강원도도『대한지지』<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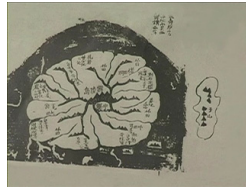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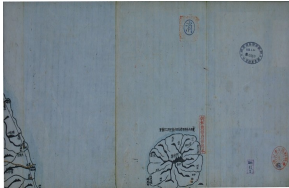
『대한전도』<sup>55)</sup>



현재가 작성한 「대한전도」는 또 다른 계통의 지도이다. 울릉도 주변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을 「우산」이라고 하여 오늘날 「죽도」와 비슷한 섬으로 그리고 있다.

### 3.4 오늘날의 「죽도」와 별개의 섬으로 표기한 「우산도」

①대동여지도의 필사본<sup>56)</sup> ②지도 강원도 울릉도<sup>57)</sup>



③ 대동총도『해동지도』<sup>58)</sup>



이 대동여지도는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했던 지도이다. 지도에 주토굴, 대풍소, 저전동 등의 지명이 보인다. 필사본에는 “영종11년(1735년) 강원감사 조최수가 울릉도를 시찰,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산 흔적이 있고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광활하다’고 적혀있어 청구도계통이지만, 거기에서 우산을 새롭게 그려 넣었다. 여기에 동여도에는 우산이라는 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필사본에 그려 넣어진 우산은 오늘날의 죽도와는 다른, 오늘날의

53)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54)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55) 전계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64 학부편집국, 현재, 1899, 국회도서관 소장.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33535>(2012년1월19일 검색)

56)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김정호, 1861

57) 전계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19세기중엽, 울릉도『조선지도』(작자미상, 18세기 중반)와 동일함.

58) 전계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p.36



독도에 해당되는 우산도라고 봐도 될 것이다.

「지도 강원도 울릉도」 지도의 특징은 2개의 섬에 초록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관음도」와 지금의 「죽도」로 볼 수 있으나, 청구도계통이나 원형지도계통과 달리, 우산도를 보다 먼 바다 쪽에 표시하여 울릉도(群島)와 별도의 섬으로 표기하려고 했다. 이는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울릉도, 우산도 2섬 인식」을 표시하여 「우산도」도 조선영역의 일부로서 표시한 지도이다.

대동총도는 우산도가 울릉도 군도의 일부로 인식한 청구도계통의 5개 섬을 그린지도와 또 다른 섬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영유의식을 강하게 표현한 지도를 서로 합친 형태이다. 이 지도는 전통적인 「우산-울릉」 두 섬의 존재를 의식한 것이다.

## 4. 「석도」와 「독도」 명칭의 발생과 전개

### (1) 칙령41호의 오늘날 독도명칭에 대한 고뇌와 「석도」 명칭의 대두

고종황제는 왜 오늘날 독도의 명칭을 「석도」라고 하였을까? 「석도」라는 명칭의 대두에 대한 필연성을 고찰함으로써 칙령41호에 의해 오늘날 독도가 1900년에 한국영토로서 확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칙령41호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와 동일한 섬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일본은 죽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올 것임에 분명하다.

근대에 들어와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됨과 동시에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침입해왔다. 이를 계기로 조선조정에서는 공도정책 중에 있던 울릉도 개척과 더불어 다른 동해도서에 대한 영토의식이 고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종황제는 관찰사 이규원으로 하여금 동해도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규원의 조사결과 울릉도에는 이미 조선인과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거주일본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일본정부에 요청했다. 고종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섬에 대해서도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칙령41호를 선포하여 울릉전도와 더불어 「죽도」와 「석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 고종은 칙령을 선포를 준비한 과정에 이규원의 조사내용을 전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몇 번의 현지답사를 통해 오늘날의 독도의 존재도 확인했던 것이다.

「우산도」라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존재했던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되는 섬의 명칭이었다. 그런데 안용복사건 이후 동해도서에 대한 영토의식이 강화되어 여러

번에 걸쳐 수토사들에 의해 울릉도가 수토되었다.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우산도」를 칙령 41호에 그대로 표기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수토사들에 의한 「울릉도도형」, 원형계통지도, 청구도계통지도에서 대체로 오늘날의 「죽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우산도 혹은 소위 우산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명칭을 「우산도」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죽도」로 인식했다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칙령에서는 오늘날의 「죽도」와 오늘날의 「독도」를 구분하기 위해 이규원이 조사한 「죽도」를 적용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울도군(鬱島郡)의 관할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당시 오늘날의 독도는 「돌섬」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이를 한자어로 표기하여 「석도」가 되었던 것이다.

독도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문서기록상으로는 1904년 니이타카(新高)호 군함일지에 「獨島라고 쓴(書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1906년 2월 심홍택 군수가 「본군소속 獨島」라고 기록한 것이 있다. 특히 니이타카호의 군함일지에서 오늘날 독도에 대해 ‘獨’자와 ‘島’자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던 것이다. 이미 울도군에서는 1904년 이전에 독도를 표기 할 때 이미 獨’자와 ‘島’자로 독도를 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獨島라는 명칭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돌섬」이라는 명칭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9)</sup> 「돌섬」은 전라도방언으로 「독섬」이라고 부른다.<sup>60)</sup> 「독섬」을 한자어로 표기 할 때 「獨島」라고 표기하는 한자음사용법이 있다. 따라서 「獨島」라는 명칭이 고착화되기 이전에는 「돌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즉 1904년 이전에 「獨島」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돌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 4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칙령에 「石島」라고 표기했다는 것은 「獨島」라는 명칭이 정착하기 이전 단계로서, 조선조정에서 울릉도의 「돌섬」호칭을 한자 표기로 「石島」라고 표기했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sup>61)</sup>

심홍택 군수가 본군소속 「獨島」라고 표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1904년 이후의 문서기록상 「獨島」라는 표기로 고착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9) 朴炳涉(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pp.48-49 박병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호, p.210

60) 전라도 방언으로 고인돌을 「고인독」이라고 부른다.

61)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군사적 영토 침략적 이유로 독도를 편입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 5. 맺으면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칙령41호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고증하기 위해 고지도상에 등장하는 울릉도와 독도의 토속적 명칭을 연구한 것이다. 본문에서 논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도」명칭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①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초기 공도정책에 의해 우산도의 지견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을 때 동해의 2섬 인식이 계승된 것으로 울릉도의 위치는 정확했으나 우산도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시기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부터 1693년 안용복사건까지의 인식이다. ②조선 중기는 공도정책에 의해 일반인들의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었지만, 안용복사건이 계기가 되어 울릉도 동남쪽에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되어 울릉도의 동쪽, 남쪽 혹은 북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경우이다. 시기적으로는 1693년 이후였다. ③조선 중후기에 공도정책으로 울릉도도항이 금지되었으나, 관리들에 의해 단기간이지만 울릉도 수토정책이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독도는 연중 50여 일간,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 날만 보이기 때문에 수토사들은 독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 2섬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아래, 지금의 「죽도」와 비슷한 위치에 우산도를 표기한 지도들이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된다.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우산도의 위치에 대해 오류를 겪는 시기였다. ④오늘날의 지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죽도」가 우산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었다.

둘째로, 「우산도」명칭의 유형별 사례를 보면, ①과 ②와 ③의 사례가 대등하게 많이 존재하지만, ④의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②의 안용복사건으로 인해 우산도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공도정책으로 울릉도 도항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우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다.

셋째로, 「우산도」와 울릉도 명칭의 생성과 변천에 대해서는 울릉도는 유사 이래 변함없이 그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나, 우산도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울릉도가 아닌 섬을 우산도라고 명칭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중기의 안용복사건을 거쳐 조선 중후기에 수토사에 의해 울릉도 수토 시에 오늘날의 독도인 우산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써 우산도의 영토인식의 발로로서 오늘날의 죽도를 우산도에 비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필사본이 등장할 시기에 오늘날 「죽도」가 동해에 존재하는 2개의 섬 중에 1개 섬인 「우산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죽도」 위치가 아닌 새로운 위치에 「우산도」를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넷째로, 「석도」와 「독도」 명칭의 생성에 관해서는 일본의 울릉도 침입이 본격화되어 조선조정에서 울릉도개척을 단행하였을 때 울릉도 거주민에 의해 독도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형상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영토침략이라는 위기위식 속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발생하면서 섬의 형상에 의한 「돌섬」라는 명칭이 발생했고, 영토관리차원에서 고종황제가 칙령을 발령하면서 「돌섬」에 해당하는 관찬문서용의 한자표기로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 「돌섬」의 의미를 가진 전라도방언에 의해 「獨島」라는 명칭이 생겨났던 것이다.

**【參考文獻】**

김호동(2009.2)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 사학』 94

박병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호, p.210

\_\_\_\_\_ (20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 독도 국제심포지움』 p.154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참조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사업사, pp.23-322

정영미역(2010) 『竹島考 상·하』 경상북도·안용복재단, p.205-211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pp.31-380

최장근(2008)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pp.17-305

최장근(20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구상』 백산자료원, pp.11-130

홍성근·문철영·전영신·이효정(2010)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池内敏(2010) 「일본 에도시대의 竹島松島 인식」 『獨島研究』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01

池内敏(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p.14

川上健三(1966) 『죽도의歷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p.100

「울릉도지도」  
[http://cafe.daum.net/lovery416/Kfw4/2?docid=1KmgV|Kfw4|2|20100424192425&srchid=IIMVWkZ3300&focusid=A\\_1456AE104BD2C6C098B883](http://cafe.daum.net/lovery416/Kfw4/2?docid=1KmgV|Kfw4|2|20100424192425&srchid=IIMVWkZ3300&focusid=A_1456AE104BD2C6C098B883)(2012년1월18일검색).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2012년1월18일검색)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서와 울릉도외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ms1530&logNo=10010622279>(2012년1월19일검색).

「독도에 대한 사실들」, <http://blog.naver.com/cms1530/10033192287>

---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

---

 <要旨>
 

---

###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칙령41호의 「석도」가 오늘날 「독도」라고 하는 것을 고증하기 위해 고지도와 고문헌상에 등장하는 울릉도와 독도의 토속적인 명칭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우선 「우산도」라는 명칭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라 울릉도의 동서남북에 우산도가 표기된 것,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산도의 존재가 울릉도 동남방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명확한 것으로 인해 우산도를 울릉도 동측, 남측, 북측에 그린 것, 조선중기, 후기에 조선정부가 공도정책으로 울릉도도항을 금지한 이후 조선관리가 단기간에 울릉도에 체재하였을 때 무분별하게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 표기한 것, 오늘날 독도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지만, 우산도가 지금의 「죽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이라 죽도의 위치를 피하여 우산도를 표기한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조정이 울릉도개척을 본격화하였을 때 울릉도 거주민들에 의해 독도의 존재와 그 위치나 형상을 잘 알고 있었다. 고종황제가 영토관리의 차원에서 칙령을 발령하여 「돌섬」에 해당하는 관찬문서용의 한자표기로 「석도」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독도」라는 명칭은 「돌섬」의 의미를 가진 전라도 방언에서 명명된 것이다. 당시 울릉도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80%나 이주하여 살았던 것이다.

#### Old Map Research About 'Usado (于山島)' Names

This is the research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re is Seokdo in the Chikryeong 41. This Seokdo is Dokdo. there is Ulleungdo and Usando in the old map and the document. The Usando is Dokdo in the this map. So this research is that Usando is the type of 4 kinds. First, the Usando is east, west, north and south. than Ulleungdo It is that two islands Usando and Ulleungdo exist in East Sea. Second, the Usando exists east, south and north than Ulleungdo. It is because An Yong Bok directly discovered this Dokdo. Third, the Usando exists east and south than Ulleungdo. It located the same place Dokdo of today. Fourth, the Usando marked in Chukdo(Bamboo island) of now. It is wrong. Chousen government emptied Ulleungdo. But managed Ulleungdo as Chousen(Korea) territories. Chousen government official went to Ulleungdo. In that time government official cannot see Dokdo from Ulleungdo. But, Ulleungdo and Usando was knowed a Chousen territory. So they marked Usando beside Ulleungdo. But the location is differentwith Dokdo of today But they clearly remembered that the Usando is Chousen(Korea) territory. And on 1882 Korea opened up Ulleungdo. many person started to live in Ulleungdo, Ulleungdo people saw the name of Dokdo. Also Japan people secretly came and lived into Ulleungdo. The Korea government recorded Se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document. The name of Seokdo and Dokdo mean rock islands.